

지역 매 아리

김제시 보건소

여름철 '사랑의 헌혈' 실시

김제시 보건소는 8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김제시청 민원실 앞 주차장(대한적십자사전북혈액원 헌혈차량)에서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절기 '사랑의 헌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헌혈 대상자는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여 45kg, 남 50kg 이상)으로 신체 건강한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헌혈에 참여한 경우 자원봉사 4시간 인정과 함께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간기능 검사, 매독항체 검사 등 7종 이상의 혈액검사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헌혈증서, 헌혈자 기념품과 함께 진공머그컵(1만원 상당)이 특별 추가 지급된다. 헌혈 참여자는 전날 충분한 수면과 금주 및 건강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각종 질환자 및 헌혈제외대상자는 헌혈을 할 수 없다.

강신호 보건위생과장은 "여름철 혈액 수급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서 한 사람의 헌혈이 누군가에게 생명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며 공무원 및 시민여러분들이 헌혈에 적극 참여하시어 생명나눔 사랑의 실천으로 행복한 김제, 사랑의 도시 김제 만들기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김제=곽태기 기자

김제농협 지도사업 평가

'쌀생산 조정제강화' 전국1위

김제농협(이정용 조합장)은 지난 5일 지도사업 핵심테마 프로모션의 추진결과 쌀 생산 조정제강화 부문에서 전국1위 농협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가졌다.

그동안 김제농협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고 다양한 소득을 창출하고자 벼 생산에만 의존하던 농가에게 대체작물로 논공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 조정제를 성실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해 3,305㎡ 부지에 400㎡ 보관창고 1동과 400㎡ 선별장 1동을 신축하고 시설을 갖추어 정선, 선별, 수매, 보관까지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경기화성 소재의 '정남농협'과의 MOU계약을 통한 판로 확보 및 시장가격을 선도해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소득보전에 기여한 바 있다.

이정용 조합장은 "앞으로도 전북도청·김제시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쌀 조정제 사업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태기 기자



완주군은 지난 3일 오후 삼례문화예술촌 소극장에서 펼쳐진 소리연극 '삼례, 다시 봄!'을 공연했다.

'삼례, 다시 봄!' 공연 호평

완주 삼례예술문화촌,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아픔과 항쟁의 역사 품어
박성일 군수 "일본 경제보복' 군정의 역량을 결집해 엄중하게 대처'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을 바라보는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주민들의 분노는 더욱 크다.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아픔과 항쟁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있어 반일 감정과 분노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삼례문화예술촌은 일제강점기에 삼례역 철도를 이용해 군산으로 양곡을 이출하는 기지역할을 했으며 군산, 익산, 김제와 더불어 양곡수탈의 중심지였다. 당시 일본인 대지주 시라세 이가 설립한 이업사 농장창고로 추정되는 건물 6동을 원형대로 잘 보존해 목공소, 책공방, 모뎀미술관, 디지털 아트관, 카페 프레, 소극장 씨어터 애니 등으로 조성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쌀 수탈의 전진기지였지만 일제에 항쟁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백색국가) 배제와 맞물려 "일본의 경제보복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일 오후 삼례문화예술촌 소극장에서 펼쳐진 소리연극 '삼례, 다시 봄!' 공연은 지역주민 등 전 객석을 매운 관람객의 결의를 다지는 장(場)으로 승화했다는 후문이다.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이 주관한 이 공연은 일제 토지 수탈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조그만 땅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인 '대복'이 어릴 적 친구이자 일본인 지주의 농장에서 마름 노릇을 하는 '판수'와 갈등을 빚는 것으로 시작한다.

암울한 시대 상황에 굴하지 않는 정되는 건물 6동을 원형대로 잘 보존해 목공소, 책공방, 모뎀미술관, 디지털 아트관, 카페 프레, 소극장 씨어터 애니 등으로 조성했다.

20대의 한 관람객은 "쌀 수탈의 아픔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일제에 항쟁하며 희망을 노래했던 우리 민족의 지력을 확인하는 감동적인

연극이었다"며 "삼례양곡창고 등 문화예술촌을 둘러보며 다시 한 번 국일(克日)의 결심을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공연은 올 하반기에 다시 3회 무대에 올려 질 예정이어서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육극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호국의 도시 완주군도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에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최근 간부회의 석상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처치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며 "군정의 역량을 결집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지금이 미미하지만 앞으로 클 수 있다"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도 일본의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만경읍 이장협의회, 산업시찰 및 단합대회 실시

김제시 만경읍 이장협의회(회장 유석준)는 최근 휴가철을 맞아 영농철 농번기에 지친 몸과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함양군 지리산 일대에서 단합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이장협의회는 지리산의 자연경관 등을 이용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수의 창출과 주변에 위치한 문화유산 자원 등을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는

방법 등을 확인하여, 만경이 만경의 유려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 등을 통하여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향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까지 만경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유석준 이장협의회장은 이번 산업시찰을 통해 "우리 만경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를 해보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

고, 이후 진행된 단합대회에서는 회원들간의 끈끈한 정과 화합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 우리 만경읍이 발전하는데 함께 힘을 합치자"고 다짐했다. 한편 최병인 만경읍장은 "항상 읍정발전엔 협조해주신데에 대한 고에 감사드리고, 산업시찰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모색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다문화가족 정착기반 마련 지원

김제시, 양질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다양한 문제와 욕구해소 등 해결책 제시

김제시는 지역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기반 마련을 위해 양질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례관리는 개별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욕구 해소를 위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심리·정서적 지원은 물론 내·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문제해결을 돕고 사후관리까지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이다.

김제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두고 가정폭력, 이혼 등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위기가족과 정보부족 및 소득부족 등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복합적인 문제로 지역

사회의 자원 활용과 연계가 필요한 다문화가족을 위해 연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관리사업 대상자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등으로 김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례관리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545-85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은 "이주와 결혼이라는 생애사적인 사건을 동시에 경험하는 결혼이민자와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줄여나가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김제시, 올해 전북도 사회조사 실시

13일~9월 2일까지

김제시는 오는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14일간) 2019년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통계조사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관련 지역정책 개발 및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통계조사이다.

조사대상은 시 관내 표본조사구 내 거주하는 67가구 중 만 15세 이상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등 7개 분야 총 59문항을 조사하며, 조사원이 각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항목에 대해 질문한 후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월 말 전라북도 통계시스템과 국가통계 포털에 조사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김중배 정보통신과장은 "대상자가 응답한 모든 사항은 통계법으로 엄격히 보호되므로 전라북도 정책개발과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완주군, 보조지하수 관측망 추가 설치 운영

완주군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나서고 있다.

완주군은 지하수자원의 적절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조지하수 관측망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보조지하수 관측망은 수위, 수온, 전기 전도도의 변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체계적인 관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치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 수위고갈, 수질 오염 등의 지하수 장애를 사전에 감지한다.

완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8000만원을 투입해 화산, 구이, 운주, 비봉, 상관(2개소) 총 6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4000만원을 투입해 이서, 용진, 소양 3개소를 7월말에



설치 완료했다. 강신영 완주군 환경과장은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관측시스템(D/B)을 구축, 지하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Advertisement for 'Imshil Cheese' (임실치즈).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various cheese products, including wheels, blocks, and containers. Text includes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The Capital of Korean Cheese is Imshil Cheese) and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The original Imshil cheese, developed and distributed in Korea for the first time by Belgian-born Didier l'Serstevens). The ad also mentions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Imshil cheese, made with fresh raw milk and 40 years of processing technology, has a rich and delicate taste, making it an excellent nutritional snack for children and the elderly.)